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MEMOIRS OF NEUROTIC ZOMBIE

가제 : ‘신경쇠약 좀비이야기’ 시리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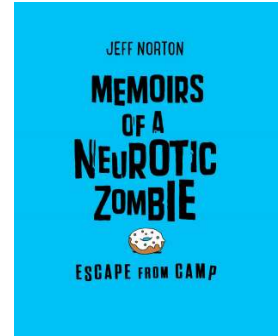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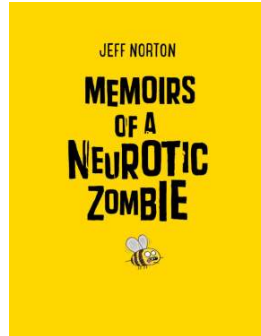
저자 : Jeff Norton

출판사: Faber Children's Books

발행일: 2014년 8월 7일(1권) / 2015년 9월 15일(2권)

분량 : 256 페이지 / 224 페이지

장르 : YA 소설



‘읽을 수 있는 비디오 게임’을 표방한 소설 ‘MetaWars’로 수많은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은 작가 제프 노튼이 좀비 소년의 좌충우돌 생활을 담은 새로운 시리즈를 선보인다. 갑자기 좀비가 된 열두 살 소년, 아담 멜처의 배꼽 잡는 모험담이 펼쳐진다.

1권. 활동적인 좀비 이야기(The One with the Zealous Zombees)

즐거운 열두 살 생일 날, 아담 멜처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만다. 게임을 위해 나무에 매달아 놓은 로봇 모양 통을 어떻게든 떨어뜨리려고 힘껏 막대기를 휘두르다가, 그만 벌집을 건드려 벌에 쏘인 것이다. 모두가 아담의 짧은 삶은 그렇게 끝이 난 줄만 알았다. 아담이 쓰던 방은 동생이 차지하고 부모님은 아담의 옷들을 전부 불우이웃에게 기부해버렸는데, 죽은 지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아담이 두 발로 집 현관에 들어섰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좀비가 되어 무덤에서 기어 나와 집으로 돌아온 것이다. 가족들은 당연히 기절초풍했지만, 어쨌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그렇게 좀비가 된 아담은 다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일상생활을 시작한다. 좀비와 전혀 어울리지 않게시리 좀 극심한 결벽증이 있는 아담은 흙이나 세균을 극도로 싫어하고 다른 사람과는 손끝 하나 닿는 것조차 꺼려하니, 못 좀비들처럼 사람을 먹어 치우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다.

평범한 인간도 평범한 좀비도 아닌 상태로, 아담은 열심히 학교에 다니며 최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않고 조용히 적응하려고 애쓴다. 그런데 동네에 사는 ‘인간이 아닌 존재’가 자기 혼자 아니라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다. 이웃집 어네스토는 흡혈 괴물로 악명 높은 추파카브라로 변신하다가 그만 아담에게 딱 걸리고, 아담이 마음을 훌쩍 빼앗긴 아름다운 소녀 코리나는 알고 보니 흡혈귀, 심지어 ‘채식만 하는’ 흡혈귀였다. 두 친구의 실체를 알게 된 아담은 자신이 어쩌다 좀비가 됐는지 이유를 밝혀야겠다고 결심하고, 두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완전히 죽지 않은 세 명의 존재. 그들의 흥미진진한 모험이 시작된다.

2권. 캠프 탈출(Escape from Camp)

분명히 죽었지만 좀비로 다시 돌아온 아담. 채식주의 흡혈귀와 추파카브라인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마침내 자신이 좀비로 변해버린 이유를 밝히는데 성공한다. 세 사람은 고된 수사 활동에 지친 심신을 달래러, 여름 방학을 맞아 즐거운 캠프에 참가하기로 결정한다. 원래 살던 마을과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시골에 도착한 세 아이들. 그런데 그곳은 들어선 순간부터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진다. 역시나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세 사람은 어두컴컴한 숲 속을 헤매던 중 무시무시한 존재를 발견하는데..

어느 날 좀비가 되어버린 소년을 주인공으로 기발한 모험을 그린 시리즈로, 아담의 이야기 속에는 가족과 우정에 관한 진지한 메시지와 함께 서로 다른 존재를 인정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행복이 가득 담겨 있다.

<저자 소개>

제프 노튼(Jeff Norton)은 작가, 프로듀서로 활동 중이다. 캐나다에서 성장한 후 할리우드에서 프로듀서로 일하다가 런던으로 옮겨와서 프로덕션 회사 'AWESOME'을 운영 중이다.

제목 : LORALI

가제 : 로렐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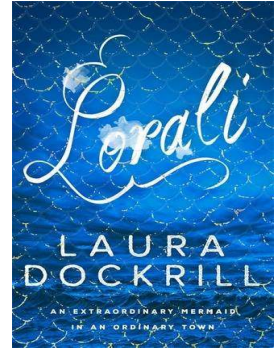
저자 : Laura Dockrill

출판사: Hot Key Books.

발행일: 2015년 7월 2일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YA 소설



파도에 휩쓸려 부둣가에 나타난 소녀, 인어공주의 삶을 모두 포기하고 물로 올라온 로렐라이

열여섯이 된 생일날, 로리는 홀로 헤이스팅스 부두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피시 앤 칩스를 먹고 있었다. 어릴 때부터 요리엔 영 소질이 없는 엄마 대신, 로리는 아빠와 둘이 늘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음식을 먹으며 생일을 축하했다. 이제 아빠는 스페인으로 떠나고 없지만, 로리는 홀로 그 전통을 지키며 친구들을 기다리는 중이었다. 그런데 한참을 앉아 있던 자리를 털고 일어나 가려는 찰나, 갑자기 하늘이 문이 열리듯 갈라지더니 그 사이에서 불어 닥친 바람이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구름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멀쩡하던 하늘에 질고 묵직한 구름이 순식간에 몰려들더니, 굵은 빗줄기가 내린다. 로리는 거센 바람을 피해 가까운 부두 한 구석으로 몸을 피했다. 성난 바다가 정말 사람이 화를 내듯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며 황당해하던 로리의 눈에 이상한 물체가 들어왔다. 사람의 팔꿈치 같은 물체였다. 깜짝 놀라 처음엔 모른 척 하려고 했지만, 정말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로리의 발을 붙잡았다. 다시 돌아보니, 팔꿈치가 움직였다. 살아있는 사람이 분명했다. 서둘러 가까이 가자, 파도에 밀려 물로 올라온 사람은 또래로 보이는 소녀였다.

소녀의 이름은 로렐라이. 로리는 그녀를 처음 발견한 그 날부터 보호자가 된다. 생일날 완전히 별거벗은 모습으로 발견된 로렐라이는 믿기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로렐라이는 바닷속에서 온 인어였다. 대서양의 여왕이 지배하는 바다 왕국, 그곳의 공주이자 유일한 상속자인 로렐라이는 인어와 왕족의 삶을 전부 거부하고 인간이 되기로 결심한 것이다.

인간 세상에 처음 온 로렐라이에겐 모든 것이 신기하기만 했다. 마치 얼음 위에 올려 놓은 작은 사슴처럼 제대로 걸지도 못하지만 그토록 원했던 두 다리도 마음에 꼭 들었다. 로렐라이는 무엇이든 배우고 싶었던 모험을 하면서 어엿한 한 사람의 인간으로 살아가고 싶었다. 그녀의 진솔함, 해맑은 순수함은 인어라는 과거만큼이나 로리에게 신선하게 다가오고, 조금씩 사랑을 느끼기 시작한다. 또래 친구들처럼 막막한 미래를 생각하며 고민만 하던 로리는 로렐라이를 만난 후,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을 느낀 후부터 얼른 어른이 되어 그녀를 안전하게 지켜줘야겠다고 굳게 결심한다.

로렐라이를 지켜주려는 소년, 그녀를 다시 빼앗아가려는 존재들과 그들을 돕는 수상한 해적들

인간이 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은 로렐라이의 소망은 결코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녀가 처음 물에 오르던 날 온 세상을 뒤엎을 듯한 폭풍우가 친 것도 우연이 아니었다. 얼마 후, 하품이 날 정도로 늘 고요하기만 하던 로리의 마을에는 수상한 방문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한다. 이젠 원래 살던 바닷속 왕국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된 로렐라이. 그녀의 어머니 바다 왕국의 여왕은 그녀를 찾는 일에 혈안이 되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 인어 세계에서 인간 전문가로 유명한 오팔은 인어들의 존재를 아는 해적들에게 접촉하여 도움을 요청한다. 두 쌍둥이 형제와 그들의 형까지, 세 명이 함께 움직이는 아벨게어 가의 삼형제가 바로 그 주인공이었다. 세 사람은 속셈을 감추고 로리와 로렐라이에게 접근하고, 여왕은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급기야 인간 세상과 바닷속 세상 모두를 완전히 뒤엎을 극단적인 조치까지 떠올린다. 로리는 로렐라이를 지킬 수 있을까? 로렐라이가 정말 있어야 하는 곳은 어디일까?

<저자 소개>

로라 독크릴(Laura Dockrill)은 시인이자 소설가로 브릿 예술학교를 졸업하고 일러스트레이터, 시인, 작가로 활동 중이다. ‘가디언 전문가 교실(Guardian Masterclasses)’에서 아이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치면서 다양한 방송 매체를 통해 공연과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MISTAKES IN THE BACKGROUND》, 《UGLY SHY GIRL》, 《ECHOES》 등의 작품을 발표했으며, 어린이 도서로 처음 발표한 《DARCY BURDOCK》 시리즈는 아홉 개 언어로 번역되고 ‘워터스톤 아동도서 상(Waterstones Children's Book Prize)’ 결승 후보에 올랐다.